

그리스도인상

한국신학대학의 학생들이 주최하는 신학회에서 '20세기의 신학도'란 주제로 작은 모임을 가진 일이 있다. 그 모임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상(像)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.

구약에는 예언자, 제사장, 서기관 등이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그 중 어느 전통에 섰을까? 예수를 그리스도교의 기점으로 삼는다면 예언자의 전통에 섰으리라. 예언자의 특징은 기성 제도의 어느 틀에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야인적(野人的)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이나 그 집단 자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계에 침투해 들어갔다. 그러나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공적(公的)인 국가 종교가 되고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이루면서부터 이런 전통은 후퇴되고 서기관과 제사의 전통으로 이변(移變)됨으로써 그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소시민의 모습으로 변모했다.

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일제시대에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제도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다. 그래서 예언자적이었다.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깊이 숙달하지 못했으면서도, 그 기백은 진취적이었다. 그것은 제도적으로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공동체로서였다. 그러나 그것이 점차 제도화되어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제사종교, 서기관 종교화되어 가면

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.

그것은 해방과 더불어였다. 해방과 더불어 이 땅에 미국의 세력이 군림함으로써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콘스탄틴 황제 이후의 종교의 모습을 지니기 시작했다. 대통령을 위시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교 편에 섬으로써 그런 모습은 더욱 뚜렷해졌다. 이로써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그 체질은 진취적인 데서 고착 상태로 들어갔다. 시간적(역사적)인 자세에서 공간적인 자세로 바뀌었다. 그러한 단적인 증거가 그 내분이다. 그 내분은 다분히 어떤 정신적인 동기에 서가 아니라,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점령하려는 싸움이었다. 교회 쟁탈전 등은 바로 공간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 이상이 아니다.

그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상은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급급한 소시민적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. 그렇다고 활달한 자연인도 될 수 없었다. 까닭은 어느 구석에 폐쇄된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. 선교사들에게서 전수된 교리적 그리스도교는 변화된 세상에 대해 아무런 새로운 해석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활과 관계 없이 마치 교리를 비닐 주머니에 넣은 채 삼킨 사람처럼 되어 버렸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일반인보다 오히려 웅고집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이다. 그러므로 점점 소심해지기만 한다. 그래서 그 태도는 불신임적이고 계산적이다.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그대로 늘어내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장의 기술만 드러났다. 이런 체질이 개인에서, 교회에서 풍겨 나온다. 이렇게 그대로 나아갈 수는 없다.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 출구를 찾아야 한다.

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면서 동양인이다. 그리스도교가 서구인의 손을 거쳐서 전수됐기에 그리스도인이면 서구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전혀 없다.

우리는 동양적 인간상에서 잃었던 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까?

유교에는 군자(君子)라는 인간형이 있다. 불교에는 도승(道僧), 도교에는 선인(仙人)이라는 인간형이 있다. 그리스도인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에 가까울까? 군자란 역시 기존 질서에 잘 적응하는 인간형이다. 그러나 불교의 도승이나 도교의 선인은 그런 틀 속에 한 자리를 가진 형은 아니다. 성서의 예언자, 제사장, 서기관형과 비교할 때 군자는 서기관형이라고 한다면 후자들은 예언자형과 유사하지 않을까?

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아주 호탕한 인간형이 꽤 많다. 그들은 일변 탕자적인 인상이 있으나 기존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의 기상을 갖고 있다. 그들은 유머와 비분강개로써 이 세상을 초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자(獅子)처럼 기갈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. 저들은 결코 소심하지 않다. 그들의 지향하는 바는 결코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, 질적인 것에 있었다. 그들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초연할 수 있고 대의(大義)를 위해서는 목숨도 소개와 같이 버릴 수가 있었다. 그들은 기존적인 것에 어떤 자리도 없으나 때로 금관의 왕자로 군림하여 세상에 초연하면서도 어떤 폐쇄된 인간의 마음, 사회에 숨통을 뚫어주기도 한다.

그러나 이러한 인간상은 이 사회가 제도화되고 서구화되어 가면서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. 마치 불법화된 유다 사회에서 예언자가 사라졌듯이 ...

그러나 우리 피에 그러한 기질이 잠재하고 있다.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기질에 예언자적 기질을 접목함으로써 다시 살아나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?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는 모르겠다. 그러나 하얀 큰 일을 꿈꾸는 것보다 그 기질의 혁명이 앞서야 할 것은 틀림없는 급선무가 아닌가!